

제주소설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배비장전」과 「바람 타는 섬」을 중심으로—

김 동 윤*

차 례

1. 문화콘텐츠와 지역문학
2. 축제의 원천자료로서의 소설: 「배비장전」
3. 문화원형콘텐츠 생산 주체로서의 소설:
「바람 타는 섬」
4. 마무리

1. 문화콘텐츠와 지역문학

우선 문화콘텐츠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물론 영어단어에서의 콘텐츠(contents)는 '내용이나 목차'를 의미하는 단어다. 말하자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콘텐츠겠지만, 문화콘텐츠·인문콘텐츠·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에서의 콘텐츠는 단순한 내용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테크놀로지를 전제로 하거나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내용물'로 정의된다.¹⁾

* 제주대학교 교수

1) 최연규,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살림, 2006), 40~41쪽.

이렇게 콘텐츠가 미디어나 기술을 전제로 하는 내용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디지털 기술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아날로그 콘텐츠도 가능하고 문화적인 소재를 기획하고 포장하고 상품화한 것도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란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의 문화적 공정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드높인 것”이라고 좀더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 여기서의 논의도 이런 폭넓은 정의에 바탕을 둔다. 말하자면 문화콘텐츠는 창의력·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 정도로 인식해도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문화콘텐츠는 어느 특정 영역의 산물이 아니다. 원천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해서 문화콘텐츠의 자원(resource)으로 제공하는 것은 인문학자들의 몫이고, 이를 웹상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디자인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공학 분야의 몫이며, 경영학적 마케팅 마인드도 필요하다.³⁾

그렇다면 왜 지역문학에서 문화콘텐츠를 논해야 하는가. “지역에서 문학하기란 바로 생활문학이며 실천문학에 몸담는 일”⁴⁾임을 믿기 때문이다.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저항하는 대안적 방략의 하나로 ‘지역’이 새롭게 환기되고 있다. 지구-지역 간의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일은 오늘의 우리에게 부여된 화급한 일이다.⁵⁾ 세방화 혹은 지구역화(glocalization)의 환경 속에서 지역문학의 주체들이 주어진 과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현 시점에서 지역문학 연구자는 새로운 문학담론 창출이 지역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활동이라는 확고한

2) 위의 책, 59~60쪽.

3) 함복희, 『한국문학의 문화콘텐츠화 방안』(북스틸, 2007), 7~8쪽.

4) 박태일, 「디지털문화 환경과 지역문학의 방향」, 『지역문학연구』제10호(경남·부산 지역문학회, 2004), 288쪽.

5) 김양선, 「탈식민의 관점에서 본 지역문학」, 『인문학연구』제10집(한림대 인문학연구소, 2003), 7~8쪽.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존 문학연구에서 얻은 과거의 성과와 방법에 대해 지역 시각으로 다가서는 새로운 헤아림이 있어야 하고, 학제적 연구의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며, 연구의 지역적 실천을 위해 지역문화 연결망을 마련하는 일 등의 요건을 선결해야 한다.⁶⁾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가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현대사회의 주역을 '창조적 계급'이라고 명명한 바 있는데,⁷⁾ 지역문학연구가야말로 창조적 계급으로서의 당당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재출발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섬'이니 '국제자유도시'니 '특별자치도'니 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거창하고 요란하게 늘어놓는 공간이 되고 있다. 과연 국제자유도시 시대, 특별자치도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들이 수탈의 다른 이름이 되지 않도록 바짝 긴장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의 문학연구자들은 생활문학·실천문학에 몸담음으로써 급변하는 주변 정세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근래 제주에서 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대개 역사민속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려고 한다. 물론 역사민속자료가 문화콘텐츠의 좋은 원천자료임은 분명하지만, 거기에서 좀더 안목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 자료들과 관련하여 작가들이 다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가공한 텍스트인 문학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로마신화가 신화학자들만의 공로로 세계인이 즐기는 신화가 된 것인가? 토머스 불핀치(Thomas Bulfinch)나 구스타프 슈바브(Gustav Benjamin Schwab) 등의 작가들에 의한 재창조 작업이 오늘날의 그리스로마신화를 있게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은가?

특히 소설은 문화콘텐츠의 요긴한 원천자료⁸⁾다. 윈소스 멀티유스

6) 박태일, 앞의 글, 291~292쪽.

7) 최연구, 앞의 책, 15쪽.

8) 원천자료(source)는 문화산업에서 사용되거나 응용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함복희, 앞의 책, 19쪽.

(OSMU)⁹⁾ 시대의 매우 유용한 기초예술이 소설이다. 영국의 조앤 롤링(Joanne Kathleen Rowling)의 입지전적인 성공은 그 상징적인 예다.¹⁰⁾ 제주소설도 원소스 멀티유스 시대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서는 제주소설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시론(試論) 정도로, 고소설 「배비장전」과 현대소설 「바람 타는 섬」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축제의 원천자료로서의 소설: 「배비장전」

전라도 지역에서는 문학작품에서 소재를 따온 문화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다. 남원의 '춘향제'와 '홍부제', 장성의 '홍길동축제', 정읍의 '정읍사문화제', 익산의 '서동문화축제', 곡성의 '심청축제' 등이 그것이다. 그 성공 여부를 떠나 문학작품을 원천자료로 삼아 수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여기서 전라남도 곡성군의 심청축제를 주목해 보자. 심청이 곡성 출신이라는 전승(「관음사 연기설화」)이 있음에 착안한 곡성군에서는 심청축제를 열기 위해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용역팀은 판소리계 소설의 배경지가 주로 전라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심청전」마저도 배경지가 전라도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한편 심청이 실존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내었다.

9) One Source Multi-Use. 하나의 소재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최 연구, 앞의 책, 61쪽 참조.

10) 1965년 영국 웨일스 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난 조앤 롤링은 엑세터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포르투갈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결혼했으나 곧 이혼하고 생후 4개월의 딸과 함께 에든버러에서 생활보조금으로 연명하다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다. 그 소설은 세계를 강타했다. 2004년 「포스트」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조앤 롤링은 10억 달러를 가진 세계 552번째 갑부다. 세계에 3억 부 이상 팔린 것은 물론이요, 영화로도 2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고, 해리포터 캐릭터도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렸다. 위의 책 61~62쪽 참조.

공양미 삼백 석에 남경 상인에게 팔려 옥과를 떠난 심청은 섬진강을 따라 승주 낙안포에 이른 다음 남해의 금일도에서 대형 상선으로 갈아탄 후 부안의 소래포(현재의 내소사 앞 포구)를 거쳐 서해로 나가 위도 부근의 임수도에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¹¹⁾

곡성군은 이처럼 좀더 검토가 필요한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¹²⁾ 2000년 5월 곧바로 심청초혼제를 치른 이후 2001년부터 가을에 정기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심청축제에는 주로 「심청가」 공연, 심청 마당극, 공양미 삼백 석 모으기 대회(노인 개안 수술 비용 마련), 학술대회(효 문화 주제 등), 「심청전」 문학기행 등이 마련되고 있다.¹³⁾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심청전」과 지역의 관련성을 내세우면서 문화상품을 창출해낸 것이다.

반면에 제주도는 어떤가. 「배비장전(裵裨將傳)」이라는 지역적 근거가 확실한 소설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다. 완전히 방기한 채 문화상품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배비장전」은 판소리 열두 마당 중에서 창(唱)이 유실된 「배비장타령」에서 온 판소리계소설이다. 김경이 호남좌도 제주군의 목사로 발령받게 되면서 비장으로 수행하게 된 배선달의 봉육담이다. 조선조 소설 중에서 제주도를 주무대로 펼쳐지는 작품으로는 유일하다.¹⁴⁾ 특히 이 작품에서의 제주도에 대한 서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풍정(喚風亭) 배를 내려 화북진(禾北鎭) 좌기(坐起)하고, 사면을 둘러보

11) 「효녀심청의 역사적·국문학적 고증」(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0), 2~4쪽; 강지희, 「「심청전」의 형성과 현대적 변용 과정 연구」(조선대 박사논문, 2005), 125쪽에서 재인용.

12) 심청전의 무대에 대해서는 황해도 장산곶, 경기도 용진군,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등 여러 설이 있다.

13) 강지희, 위의 논문, 124~129쪽.

14) 박지원의 「허생전」에 허생이 제주도에 들어가서 말총을 사 모으는 장면이 있으나 작품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니 제주가 십팔경(十八景)이라. 제일경은 망월루(望月樓)였다.(신구문화사, 20쪽)15)

영무정(永舞亭) 바라보고 산지(山芝)내 얼핏 건너 북수각(北水閣) 지나 놓고 칠성(七星)골 너른 길로 관덕정(觀德亭) 돌아들 제 권마성(勸馬聲)은 새 득하고 취타성(吹打聲)은 동지(動地)로다.(42쪽)

이렇게 인물들의 동선을 따라 제주의 모습이 펍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화북진·산지내·칠성골 등의 지명과 환풍정·영무정·망월루·북수각·관덕정 등의 건물들은 이 소설의 지역 연고를 확고히 해 주기에 충분하다. 제주의 해녀에 대한 묘사도 매우 사실적이다.

별안간 물 속으로 거무수름한 물건 흐느끼 털빙털빙 느오는지라, (...) 귀신은 아니요 물 속에 드러가 전복 짜 가지고 나오는 계집이라. 머리는 다방 나룻 비슷, 몸은 물씨가 올라 숯검정 한가지 모양인데 발가버슨 몸에 계집 한 폭만 말지갈 먹이듯 잔득 차고 나오는 체격은 처음 보는 스랍은 뉘라 홀 것 업시 귀급질색(氣怯窒塞)을 흐겟더라.(신구서림, 316쪽)16)

인용문은 배비장이 동헌 마당에서 봉육당한 후에 제주를 빠져나려고 배를 구하려다가 해녀를 만난 대목의 한 부분이다. 검은 피부색을 가졌으며 기겁하여 질색할 정도의 모습을 했다는 표현에서 제주해녀의 고통스러운 삶을 짐작할 수 있다.

15) 정병욱 교주, 「배비장전」, 「배비장전·웅고집전」(신구문화사, 1974), 20쪽. 이 정병욱 교주본은 국제문화관에서 민족문학총서로 간행한 텍스트를 저본으로 하여 한자어를 복원하고 주해를 수정 보충(補添)한 것이다. 배비장 봉육담까지는 이 정병욱 교주본을 텍스트로 삼아 논의한다. 앞으로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는 쪽수만 표시기로 한다.

16) 배비장이 봉육을 당한 후 애당과 재결합하고 정의현감이 되는 행복담 부분은 정병욱 교주본에서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신해진이 신구서림판 구할자본을 교주한 것을 텍스트로 삼는다. 신해진 교주본은 「역주 조선후기 세태소설선」(월인, 1999)에 실려 있다. 이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에는 ‘신구서림, ○쪽’ 식으로 명기하는데, 쪽수는 신해림 교주본의 것이다.

말하자면 「배비장전」은, 일반적인 세태소설이나 풍자소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제주도를 중심에 놓고 읽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를 중심에 놓는 독법은 여러 가지 유의미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권순공의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¹⁷⁾는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본다.

권순공은 방자와 배비장의 신분적 대립에 주목하면서 방자의 시각이 제주도민의 그것과 일치함을 밝혔다. 특히 “근래 서울 양반들, 양반 자세(藉勢)하고 계집이라면 체면 없이, 욕심낼 데 아니 낼 데 분간 없이 함부로 덤병이다 봉변도 많이 당합디다.”(58쪽)라는 방자의 발언은 제주사람들의 중앙과 양반층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품의 후반부에 나오는 해녀와 사공의 발언에서도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배비장은 동헌에서 망신을 당하고 하직하여 제주도를 빠져나가려 하던 중에 해녀를 만나 수작을 벌이다가 “량반 량반 무슨 량반이야 횡금이 조와야 량반이지, 량반이면 남녀유별(男女有別) 레의염치(禮義廉恥)도 모르고 남의 녀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락이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初面)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춤 듯기 실쿰, 어서 가소.”(신구서림, 317쪽)라고 호되게 무시당한다. 배를 구하려고 사공에게 반말을 하자 사공은 그것에 비위가 뒤틀려 “어, 스공은 왜 쳐져”라고 하는가 하면 어디 가는 배냐는 물음에도 “몰로 가는 비여”(신구서림, 318~319쪽)라고 되받아친다. 여기서의 냉소는 경직함을 넘어서 대상에 대한 증오와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배비장 개인에 대한 풍자가 아니라 배비장을 포함한 양반사회 혹은 제주관아의 관인들에 대한 풍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의 내면에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공분의 모습을 주목할 수 있는바, 이는 당시 전개된 수탈의 양상과 관련이 있다. 권순공은 작품 앞 부분에 나오는 정비장의 뱃짐¹⁸⁾에 주목한다. 다음은

17) 권순공,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제14집(반교어문학회, 2002), 49~61쪽.

애랑에게 풀어주는 뱃짐의 품목들이다.

중량(中涼) 한 통, 세량(細涼) 한 통, 탕건(宕巾) 한 죽, 우황(牛黃) 열 근, 인삼(人蔘) 열 근, 월자(月子) 서른 단, 마미(馬尾) 백 근, 장피(獐皮) 사십 장, 녹피(鹿皮) 이십 장, 홍합(紅蛤)·전복(全鮑)·해삼(海參) 백 개, 문어(文魚) 열 개, 삼치 서 못, 석어(石魚) 한 동, 대하(大蝦) 한 동, 장곽(長蠶)·소곽(小蠶) 다시마 한 동, 유자(柚子)·백자(柏子)·석류(石榴)·비자(榧子)·청피(靑皮)·진피(陳皮)·용(茸), 알레·화류(樺榴)살찍·삼층난간용봉장(三層欄干龍鳳幟)·이층문갑(二層文匣)·가계수리·산유자(山柚子)례·뒤주 각 여섯 개, 걸음 좋은 제마(濟馬) 두 필, 총마(驄馬) 세 필, 모시 다섯 필, 면주(綿紬) 세 필, 간지(簡紙) 열 축, 부채 열 병(柄), 간필(簡筆) 한 동, 초필(草筆) 한 동, 연적(硯滴) 열 개, 설대 열 개, 쌍수복 백동(雙壽福白銅)대 한 켤레, 서랍 하나, 남초(南草) 열 근, 생청(生淸) 한 되, 숙청(熟淸) 한 되, 생울(生粟) 한 되, 마늘 한 집, 생강 한 되, 나미(糯米) 열 섬, 황육(黃肉) 열 근, 후추 한 되, 아그배 한 집(22~24쪽)

권순공은 이런 품목들이 바로 공납(貢納)으로 바치는 것들이라고 지적한다. 중량·세량 등의 양태, 탕건, 말총, 전복, 해삼, 유자, 굴껍질, 노루가죽 등의 품목들은 제주특산이었음이 확실한바, 그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는 목민관 이하 관리들이 진상제도를 남용해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기회로 도구화하는 등의 폐단이 심했으니, 서울로 떠나는 정비장의 뱃짐은 곧 사욕을 채우는 양반 관리들의 수탈 품목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해녀와 사공은 수탈구조의 밑바닥에서 희생된 이들이었고 그들의 풍자가 냉소적임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특히 이런 점으로 인해 1862년에 제주에서 일어난 임술민란은 19세기에 생산된 「배비장전」과 상관성을 지닐 것이라는 추론은 매우 주목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18) 정병옥은 ‘뱃짐’으로 읽고 “배를 쌓아 놓은 짐”으로 교주하고 있으나(앞의 책, 21쪽), 권순공은 ‘뱃짐’으로 읽어 배에 실은 짐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맥상으로 보아 권순공의 해석이 좀더 설득력이 있다. 신해림 교주본에도 ‘뱃짐’(259쪽)으로 나왔으니, 역시 뱃짐이 옳을 것 같다.

따라서 「배비장전」을 통해 우리는 제주의 역사문화축제를 기획해 볼 수 있다. 관아를 중심으로 한 해학, 양반의 위선에 대한 풍자, 양반의 권위에 대한 냉소 등을 수탈에 시달리던 제주사람들의 삶 속에서 재해석한다면 역사적 의미를 담은 문화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비장전」에는 배비장이 환풍정에서 배를 내려 화북진에 좌기하는 장면, 제주의 18경 중 제1경인 망월루에서 정비장과 애랑이 이별하는 장면, 배비장이 한라산에 꽃놀이 가서 수포동(水布洞)의 숲속에서 애랑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 장면, 사공들이 배 젓는 소리를 하는 장면, 배비장이 동헌 마당에서 발가벗은 채로 해엄치는 장면 등 제주와 관련하여 해학적이거나 의미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 작품 속의 상황이 전개되는 곳이 실제 어디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과 관련하여 배비장축제의 무대는 제주목관아를 중심으로 산지 향이나 화북포까지 연결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동화 현상으로 쇠퇴되고 있는 성안[城內]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가운데 멋진 놀이마당이 펼쳐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축제의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를 추출할 수 있다. 몇 가지만 예시해 보더라도 「배비장전」이 제주의 훌륭한 축제원천자료임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본다.

첫째, 판소리 「배비장타령」의 재현을 들 수 있다. 「배비장타령」은 창이 유실된 판소리다. 하지만 박동진 명창이 복원하여 국립극장 소극장 등지에서 공연한 바 있으니,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삼아 확실히 재현하고 제주목관아 마당에서 공연한다면 아주 의미가 클 것이다. ‘탐라국입춘굿놀이’ 때 목관아 마당에서 판소리가 공연되면서도 ‘심청가’ 같은 것이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배비장타령」을 작품의 실제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둘째, 사공들이 배 젓는 소리를 하는 장면과 관련하여 「해녀 노 젓는 소리」 등의 민요를 공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제주민요경연대회 같은 것도 구상할 수 있다. 산지천 주변이나 산지향 같은 장소를 활용할 수 있

우리라고 본다. 관덕정이나 목관아 마당에서 실시해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목사 부임 장면을 비장의 수행과 관련하여 재현한다든가, 동헌에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모습을 재현해 보는 것 등을 기획해 볼 수 있다. 특히 목사 부임 장면은 소설 속에 나오는 “새 사또 도임차로 들어간다. 구름 같은 전후 좌차(座次) 좌우 청장(左右靑帳) 번 듯 들고 호들거려 들어갈 제 삼현수(三絃手)·취타수(吹打手)며 전배(前陪)·후배(後陪)·사령(使令)·군뢰(軍奴), 삼승(三升) 섭수·노랑 홍의, 남전대(藍纏帶) 눌러 띠고 인모전립(人毛戰笠)·우렁 상모(象毛)·굴깃 달아 날랄 용(勇)자 작게 붙여 쓰고 곤장(棍杖)·주장(朱杖) 번 듯 들고 쌍쌍이 늙어서서, ‘예이찌룩 예이찌룩’ 좌우로 흰화(喧譁)할 제, 물색 좋은 청일산(靑日傘)에 세악성(細樂聲)은 원근 산천 떠들럽게 ‘니나노 나노 뚜따 처르르.’/(...)/전알전에 사배(四拜)하고 만경루(萬景樓) 도림(到臨)할 제, 아이·남녀노소 없이 신관 사또 구경이다.”(40~43쪽) 등의 부분이 큰 참고가 될 것이다.

넷째, 캐릭터도 다양하게 만들어 상품화할 수 있다. 실존인물인 김만덕이 기생이었음을 감안하면 애랑과 더불어 제주도 기생의 다양한 면모를 활용한 캐릭터도 만들어 볼 수 있다. 목사·비장 같은 경래관(京來官)은 물론이요 방자·해녀 등의 제주민중의 모습도 생동감 있게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배비장전」을 마당극으로도 공연할 수도 있다. 「배비장전」이야말로 풍자소설의 대명사인 만큼 마당극의 장르적 성격에도 잘 부합된다. 다만 마당극화 할 경우에는 수탈과 항쟁의 측면이 부각되고 제주어가 풍부히 구사되어야 기존의 마당놀이나 뮤지컬과 차별성이 확보되면서 지역 예술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작업하는 것도 필요하며, 현대소설로 패러디¹⁹⁾할 수도 있다. 학술대회 등을 통해 19세기 제주사회와 관련한 다

19) 「배비장전」을 패러디한 현대소설로 채만식의 「배비장」(1943)과 한민수의 「소설 배비장전」(1996) 등이 있으나, 지역성을 좀더 부각시킨 소설로 재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면의 조사와 연구도 진행될 수 있다.

배비장축제가 마련된다면 계절상으로는 봄이 좋을 것이다. 꽃놀이가 장면이 있음을 감안하면 전혀 문화적인 배경이 없이 먹고 마시며 노는 양상으로만 전개되고 있는 ‘왕벚꽃축제’나 ‘유채꽃축제’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본다. 특히 왕벚꽃 자생지에서 행사를 벌인다면 배비장이 한라산에서 꽃놀이하는 부분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배비장전」은 제주도의 보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기획할 여지가 충분한 「배비장전」을 제주도에서는 왜 팽개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3. 문화원형콘텐츠의 생산 주체로서의 소설: 「바람 타는 섬」

문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소설은 지면을 통해 문자로만 읽는 ‘독서 텍스트’로 한정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순수언어예술 형식의 문화 산물에서 상업적으로 대량 복제·소비되는 상품으로 재가공되기 시작했다. 이미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문학의 상품화는 그 순수성을 훼손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엄연히 그것이 디지털시대의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소설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삼아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간의 소설 독서 방법은 지극히 ‘표준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의 소비도 일면적·일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분산된 독서, 분산된 소비를 지향함으로써 다방면·다매체적으로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²¹⁾ 전통적인 소설 독서 방법을 해체하여 다른 매체적 가치

20) 장미영, 「소설의 문화원형콘텐츠화 방안—최명희의 「혼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콘텐츠」(청동거울, 2005), 222쪽. 이 장에서의 논의는 장미영의 논문에서 제시된 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로 전환을 용이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원소스 멀티유스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소설의 문화원형콘텐츠화 작업은 그간의 단순한 읽기 차원을 넘어 현재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생기 있는 활물(活物)로 전환시키는 것이다.²²⁾

민족지학적 해체 독법은 소설 작품으로 형상화된 줄거리나 테마를 소설 밖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한 민족의 민속문화 요소에 연관시키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읽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속지가 일차적인 정보를 주는 평면적인 자료에 머무르기 쉬운 데 비해 소설은 이러한 평면적 원천 자료에 입체적인 상황을 보강함으로써 문화요소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²³⁾

이것은 특정 지역의 범위로 한정하더라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독특한 민속문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 관련 소설을 민족지학적 해체 독법으로 접근하는 작업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 제주인의 정체성이나 유다른 문화유산 등을 소설텍스트를 통해 읽어냄으로써 다양한 문화콘텐츠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기영의 장편소설 「바람 타는 섬」은 민족지학적 해체 독법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바람 타는 섬」은 《한겨레신문》 창간과 더불어 연재되었던 장편소설로 1930년대 제주도의 해녀항쟁을 형상화하면서 제주도의 여러 문화현상과 근현대사·생활사 등을 잘 반영해낸 작품이다. 제주도의 지역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 텍스트로서 적합한 현대소설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작품을 민족지학적 해체독법으로 접근하여 문화요소의 추출과 시놉시스화, 항목별 포트폴리오 구축, 스토리텔링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다른 매체적 가치로의 전환이 용이해지면서 여러 방면에 유용하

21) 위의 글, 240쪽.

22) 위의 글, 225쪽.

23) 위의 글, 224쪽.

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선, 문화요소는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을 정신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관련 요소로 나누며, 끝으로 그 각각을 관련 역사 자료, 관련 인물 자료, 관련 물품 자료로 세분할 수 있다.²⁴⁾ 그런 단계에 따라 접근해 가는 것이 체계적인 방식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다소 편의적으로 문화요소를 추출해 보기로 한다.

1930년대의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바람 타는 섬」에서 우리는 제주문화의 여러 양상을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제주여성, 해녀, 해녀항쟁, 야학, 독립투쟁, 민요, 무속, 설화, 풍속, 제주어, 속담 등의 요소를 주목해 보면 이 소설에는 상당히 풍성한 자료들이 있음이 확인된다. 제주의 생활사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해녀를 중심으로 하여 보았을 경우에도 복장, 작업도구, 불턱, 작업상황, 출산, 민요 등 제반 상황들이 작품 곳곳에서 포착된다.

○복장: 통치마와 겹저고리를 훌훌 벗어내니 미리 입고 온 물웃이 드러났다. 윗도리는 흰 훌쩍삼, 아랫도리는 허벅지가 드러나는 검정색 소중의 바람이다.(22쪽²⁵⁾)

○작업도구: 여옥은 집에 들러 김치 한 가닥에 쥘 고구마 하나로 점심을 때운 다음 조짚 빨감 두 뭇 위에 태왁, 망사리가 든 구덕(대바구니)을 얹어 짚어지고 어머니, 할머니랑 함께 갯가로 나갔다.(20쪽)

○불턱: 동네별로 비슷한 나이끼리 또래를 이루어 저마다 자기네 불턱을 찾아간다. 불턱이란 큰 바위를 의지해서 잠녀들이 옷 갈아입고 모닥불을 피워 금방 물에서 나와 언 몸을 쬐는 곳이다.(20쪽)

○작업상황: 여옥은 팔다리를 늘씬하게 뻗고 치마말기처럼 넓적하고 치렁

24) 위의 글, 227~229쪽.

25) 현기영, 「바람 타는 섬」(창작과비평사, 1989)을 텍스트로 삼았다. 이하 이 장에서 작품을 인용할 때에는 쪽수만 표시한다.

치렁한 미역줄기들을 헤치며 바다까지 한껏 내려갔다. 미역 밑동의 우들두들한 미역귀를 잡고 낫을 갖다댔다. 수면 위에는 달덩이 같은 태왁이 등실등실 떠 있고, 녹두빛 쥐치고기 한 마리 작업하는 여옥의 허벅지살을 뽀족한 입으로 따끔따끔 입질하며 간지럼을 먹었다.(59쪽)

○출산: “자, 문이 열렸다. 자, 더 힘내! 모래밭에 무 뿔뿔 쭈욱 뿔아내, 어서!”/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긴장하며 잔뜩 숨을 죽였다. 여옥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불안스러워 가슴이 마구 뛰었다. 길바닥에서 애를 낳다니, 짐승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다. 정말 아기가 아니라 무라도 빠져 나오면 어떡해/덕순이가 눈을 부릅뜨고 어금니를 아드득 갈며 마지막 젓 먹은 안간힘을 쏟아냈다./“더 맥 쓰라, 좀더!”/다음 순간 치마 밑에 철썩 소리가 나고 이어서 “웅아!” 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자지러졌다. 비린내가 사방에 훅 끼쳤다. 여옥은 차마 끔찍하여 눈을 감아버렸다. 삼신할머님, 제발, 탈없이 온전한 아기 내워주소서./“어서 미역낫으로 탯줄을 끊어라.”/하는 금춘의 다급한 목소리, 이어서 도아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지집아이여, 지집아이, 쫓쫓. 전생 곳은 잡녀 팔자, 아이고 요년아, 너도 몰질하려고 세상에 나왔구나.”(202~203쪽)

○민요: 이여씨나 이여씨나/ 전복 좋은 너븐여로/ 소라 좋은 너븐여로/ 태왁으로 배를 삼고/ 내 몸으로 사공삼아/ 살금살금 저어가자/ 이여씨나 이여씨(23쪽)

일부만 예시한 것인데도 제주해녀의 삶이 작품 속에 섬세하게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제주해녀를 둘러싼 생활사를 복원하는 데에 꽤 많은 공을 들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해녀들이 부르는 민요만 하더라도 20편이 넘는 각편들이 작품 속에 잘 녹아들어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런 문화요소를 추출하여 분류하고 유형화할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기능적으로 목록화하여야 한다. 향후 문화콘텐츠 제작에 구체적인 원형의 모델을 실증화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목록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시놉시스화가 필요한데, 시놉시스(synopsis)란 입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나 요약이라고 보면 된다.²⁶⁾ 「바람 타는 섬」에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겠다.

쪽수	항목	내용
20~22쪽, 61쪽	불턱	여옥이 갯가로 간다. 아낙들이 갯가에 모여 있다.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옷을 갈아입는다. 작업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이곳에서 불을 지피며 몸을 말리며 일상복으로 갈아입는다. 불턱이라는 공간에 비춰진 제주여성의 문화를 읽을 수 있다.

이런 작업은 글자로 간혀 있는 소설 속의 상황들을 사진, 만화, 그림,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시각적이고 실제 체험 가능한 자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은 것이다. 이런 항목을 통해 불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할 수도 있고 불턱 기행이나 해녀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이 항목별 포트폴리오(portfolio)다. 소설에 나타나는 문화 요소들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축해 놓은 결과는 여러 방면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넓다.²⁷⁾ 「바람 타는 섬」의 여러 등장인물들도 문화원형콘텐츠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해녀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제주공동체의 모습과 제주의 생활사를 생동감 있게 재현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캐릭터별 분류가 필요하겠다. 여옥·순주·영녀·정심·도아·덕순 등의 해녀들, 무생 등의 보제기(어부)들, 시중·호일 등의 지식인들, 김진구·장영팔 등의 친일파들 식의 여러 층위로 이중삼중의 복합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인물들을 분류한 후에는 프로필화 작업이 따라야 한다. 이 작업

26) 장미영, 앞의 글, 229쪽.

27) 위의 글, 232~236쪽.

에서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만이 아니라 인물별 에피소드, 계절별 이미지, 성격 등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항들이 잘 정리되면 곧바로 캐릭터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막연히 불특정한 해녀를 캐릭터상품으로 내놓는 것보다는 소설 속의 인물인 여옥·순주·영녀·정심·도아·덕순을 재현하는 것이 훨씬 생동감이 있고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을 것이다.

다음,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가 이어져야 한다. 이는 소설에서 추출할 수 있는 모든 문화요소에 이야기를 붙이는 작업으로, 소설 텍스트를 해체하여 가능한 많은 문화요소를 추출하고 그것들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문화 요소들을 연결시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여기 저기 흩어진 이야기를 끌어모으고 상상력과 해석을 가미해서 재배열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문화요소 항목에 스토리라인을 구축하면서 전체 작품 속에 세부 스토리가 재배열되면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가치는 더욱 증대된다.²⁸⁾ 「바람 타는 섬」에서는 영등할망 이야기, 설문대할망 이야기, 보릿고개 이야기, 이재수란 이야기, 소 키우는 풍속과 관련된 이야기, 출가물질 중에 출산한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면 제주의 수많은 설화와 독특한 풍속 등과 연계되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콘텐츠 자원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일련의 작업들은 다변화된 사회에서 소설을 모든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호환성 있는 콘텐츠로 개발하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논의는 어찌 보면 지극히 초보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한 수준에 불과하다. 전라북도 지역을 사례로 한 선행연구자의 논의에 기대어 수박 겉날기식으로 접근하는 데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통해 제주의 현대소설이 제주문화원형콘텐츠의 생산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28) 위의 글, 236~237쪽.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여태껏 그 가능성조차 타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소설이 문화콘텐츠의 요긴한 원천자료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제주소설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성긴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고소설 「배비장전」과 관련해서는 판소리 「배비장타령」의 재현, 민요와 마당극 공연, 목사 부임 장면의 재현, 봄꽃축제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축제 한마당을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기영의 장편소설 「바람 타는 섬」과 관련해서는 민족지학적 해체 독법을 통해 해녀·민요·설화 등의 제주의 독특한 문화요소를 추출하여 시놉시스화하며, 항목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스토리텔링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자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제주의 현실과 과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가 무슨 힘이 있는가? 제주의 힘은 문화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인위적인 개발은 한계가 있다. 천혜의 자연을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접맥시키는 것만이 제주가 사는 길이다. 지역문화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작업 등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는 이렇게 자연과 문화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지만 아직은 명칭만 바뀐 데 불과한 것 같다. 실질적인 자치를 하려면 제주가 한반도의 막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동아시아중해(東亞地中海)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야만 제주의 살 길이 열린다. 한반도의 막내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대한민국의 1~2% 범위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제주의 미

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특별자치도의 명칭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탐라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핵심어: 지역문학, 문화콘텐츠, 원천자료, 「배비장전」, 「바람 타는 섬」

<참고문헌>

- 강지희. 「'심청전'의 형성과 현대적 변용 과정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5.
- 권순궁.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 김양선. 「탈식민의 관점에서 본 지역문학」. 『인문학연구』 제10집.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2003.
- 박태일. 「디지털문화 환경과 지역문학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제10호. 경남·부산지역문화회, 2004.
- 신해진. 『역주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월인, 1999.
- 장미영. 「소설의 문화원형콘텐츠화 방안—최명희의 「혼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콘텐츠』. 청동거울, 2005.
- 정병욱 교주. 『배비장전·옹고집전』. 신구문화사, 1974.
-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 함복희. 『한국문학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북스힐, 2007.
- 현기영. 『바람 타는 섬』. 창작과비평사, 1989.

<Abstract>

Study of How Jeju's Novels Can Be Used as Cultural Content

—With focus on *Baebijangjeon* and *Windy Island*—

Kim Dong-yun

Novels are useful source texts for cultural content. With this in mind, this writing is to discuss how Jeju's novels can be used as cultural content. In relation to the classical Korean novel *Baebijangjeon*, this writing stresses that a cultural festival can be created to reproduce Pansori *Baebijangtaryung*, folk songs, Madang play performances and official starts of the post of Moksa (Jeju governor). In relation to Hyun Gi-young's novel *Windy Island*, it is verified that if cultural elements including women divers, folk songs, and narratives are extracted, synopsisized, built up as a portfolio by category, and processed for storytelling, it can be utilized in many ways as a source text to generate local value.

- Keywords: Regional Literature, Cultural Content, Source, *Baebijangtaryung*, *Windy Island*